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THE WEALTH GUIDE

2026 Vol.6



Part.1 세무

투자금액별 절세상품 투자 전략
: 국민성장펀드, 코스닥벤처펀드, 연금저축·IRP



한화생명

투자금액별 절세상품 투자 전략 : 국민성장펀드, 코스닥벤처펀드, 연금저축·IRP

한화생명 신은영 세무사

eyshin@hanwha.com

(작성일 : 2026.5.6)

Summary

- 2026년 절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IRP 外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 출시된 국민성장펀드, 코스닥벤처펀드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국민성장펀드**는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 배당소득을 9.9%로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3년 이상 투자 필요
- **코스닥벤처펀드**는 연 2,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를 매년 반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며, **연금저축·IRP**는 두 계좌 합산 연 900만원 납입 시 13.2~16.5% 세액공제로 최대 148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형 절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세 가지 절세 상품 세법 근거와 세제 구조

① 국민성장펀드 : 소득공제 + 분리과세

-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는 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신설조문)에 의거,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

- **[소득공제 구조]**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에 납입, **1인당 누적 최대 2억원·3년 이상 보유 시 구간별 소득공제 적용**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	공제액
3,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40%
3,000~5,000만원 이하	1,200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20%)
5,000~7,000만원 이하	1,60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
7,000만원 초과	1,800만원

*예: 7,000만원 투자 시 1,800만원 공제 가능, 7,000만원 초과분도 최대 1,800만원까지만 공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 납입 2억원 한도 내 발생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일로부터 **5년간 9.9%(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일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5.5%p 낮고 종합과세 최고세율 대비 차이는 더욱 큼.
- **[가입자격 및 투자자산]**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 직전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 가지 절세 상품 세법 근거와 세제 구조

② 코스닥벤처펀드 :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2025년 세제개편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특례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기반이 마련

- **[소득공제 구조]** 2026년 1월 기재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 구조 전환

▶ 기존: 1인당 평생 3,000만원 한도

▶ 신규: **연간 2,000만원 한도에 대해 매년 10% 소득공제 적용**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소득이 높은 해에 맞춰 공제를 신청하는 전략 가능**
- 단, 소득공제를 받은 후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펀드를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됨**

- **[펀드 구조 요건]**

- ① 설정일로부터 9개월(사모 6개월) 이내, 펀드재산 총액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구주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투자
 - ② 그 중 벤처기업 신주 투자가 재산총액의 15% 이상
 - ③ ①② 비율을 6개월마다 점검해 계속 유지
- + 나머지 약 50% 자산은 코스닥·코스피 일반주식, 채권, 공모주 등 투자 가능

세 가지 절세 상품 세법 근거와 세제 구조

③ 연금저축 IRP :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음.
- **[세액공제 구조]** 소득세법 제59조의 1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다음 공제율과 공제대상 납입한도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음.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투자상품	공제대상 납입한도액
① 연금저축계좌	연간 600만원
② IRP(퇴직연금계좌)	①+②, 연간 900만원
③ ISA만기 자금 전환시	①+②+③, ③=min(전환액10%,300만원)

- 예를 들어, 900만원 납입기준 최대 세액공제액은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 기준 148만 5천원, 초과시 118만 8천원

- **[연금수령시 저율 과세]** 연금저축·IRP는 납입시 세액공제를 받은 후,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연령별 저율 연금소득세를 납부

구분	연령(연금수령일 기준)	연금소득세율
확정기간형 연금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	55세~79세	3.3%

*2025년 12월31일 세법개정

-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에서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 전액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 **종합과세** : 그 해의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6.6~49.5% 구간을 적용
 - ▶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분리해 연금소득 전체를 일괄 16.5%로 과세
- **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연금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대상**이 되므로 투자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 과제

투자금액 시나리오별 절세효과 계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절세 상품 비교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혼동이 잦은 개념임.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율 적용 후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임.
- 이 구조적 차이로 인해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는 반면에 세액공제는 세율이 낮은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아짐.**
- **투자금액과 적용받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대해 국민성장펀드, 연금저축, IRP의 절세효과를 수치로 비교**하고, 어떤 상품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 전략을 세우고자 함 (벤처펀드 소득공제 효과는 비교판단에서 제외)

[계산 가정]

- 국민성장펀드: 배당수익률 5% 가정, 배당 분리과세 절세 효과는 5년 누적기준으로 계산 (일반 세율 15.4% - 분리과세 세율 9.9%) × 5년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 납입/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가정 (세액공제율 16.5%)

시나리오 A | 투자금액 900만원 이하

- 연금저축·IRP 최대 세액공제 납입한도까지 먼저 채우는 것이 최우선

종합소득세율 (지방세포함)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분리)	벤처펀드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6.6% (1,400만원 이하)	36.1만원	5.9만원	148.5만원
16.5% (1,400~5,000만원)	71.8만원	14.9만원	148.5만원

시나리오 B | 투자금액 3천만원 이상

- 저·중소득(26.4% ↓) : 연금저축 900만 + 국민성장펀드 2,100만 조합이 유리
- 고소득(38.5% ↑) : 3천만원 전액 국민성장펀드 투자가 순수 절세 측면에서 유리

종합소득세율	유리한 전략	절세 차이
6.6% (1,400만원 이하)	연금저축 900만 + 국민성장펀드 2,100만	+112.4만 연금저축 유리
16.5% (1,400~5,000만원)	연금저축 900만 + 국민성장펀드 2,100만	+76.7만 연금저축 유리
26.4% (5,000~8,800만원)	연금저축 900만 + 국민성장펀드 2,100만	+11.4만 연금저축 유리
38.5% ↑ (8,800만원 초과)	3천만원 전액 국민성장펀드	+32.2만 국민성장펀드 유리

시나리오 C |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국민성장펀드의 세제혜택을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고액 투자자
- 7천만원 납입 시 공제 한도(1,800만원) 도달
→ 7천만원 초과분도 배당소득세 5년간 9.9% 분리과세 별도 적용

투자금액별 최적 절세 전략 결론

- 앞서 분석을 종합하여 투자금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최적 순서가 도출됨.

900만 원 이하 → 연금저축·IRP

세월에 관계없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채우는 것이 유리
연말정산 시 최대 148.5만 원 절세

900만 ~ 7,000만 원 → 연금저축·IRP + 국민성장펀드

연금저축·IRP 900만 원을 채운 후, 국민성장펀드에 집중
종합소득세율 38.5% 투자자의 절세효과가 극대화됨

7,000만 ~ 2억 원 → 국민성장펀드 유지, 배당 분리과세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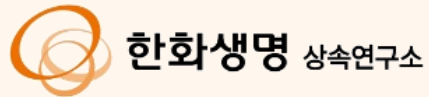
소득공제는 7,000만 원에서 한도에 도달하나,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것이 유리

2억 원 초과 → 벤처투자펀드 추가

국민성장펀드 납입한도 2억 원을 채운 이후
벤처투자펀드를 통해 연 200만원 소득공제를 지속적 확보

절세는 상품 선택이 아닌 ‘조합’의 문제

- 국민성장펀드, 코스닥벤처펀드, 연금저축·IRP는 각각 교육의 세제혜택과 위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 상품만으로는 모든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어려움.
- 핵심은 ① 연금저축 IRP로 기본 절세(최대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확보한 후, 투자 여력에 따라 ② 국민성장펀드를 최대 2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채우고, 그 이후에는 ③ 벤처펀드를 통해 매년 소득공제를 이어가는 ‘단계적 조합 전략’이 필요
- 다만, 세 상품 모두 위험자산 투자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의무 보유기간 미준수시 세제혜택이 추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함. 세제 효과만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 본인의 소득수준, 투자기간, 위험 성향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판단 필요



필수 안내사항

-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한화생명보험(주)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주)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주)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